

##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Anger and Aggression

조명현<sup>†</sup>  
Myung Hyun Cho<sup>†</sup>

### Abstract

Aggressive behavior triggered by the tendency to become angry is generating various social problems. To combat these various social issue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role that empathy plays in preventing those with trait-anger from becoming aggressive. More specifically, the hypothesis that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would mi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rait-anger and aggression was examined through this study. 329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a survey containing questions related to trait-anger, aggression,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The results showed that empathic concern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rait-anger and aggression, whereas perspective taking did not. That is, those who are emotionally empathetic do not act aggressively easily even if their trait-anger is high; while those who are cognitively empathetic struggle to reduce the likelihood of their trait-anger leading to aggressive behavior.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emotional empathy was more useful than cognitive empathy in preventing those with trait-anger leading to aggressive behavior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considered and presented as well.

**Key words:** Trait-Anger, Aggression, Empathic Concern, Perspective Taking

### 요약

일반적으로 분노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분노와 공격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감의 두 차원인 공감적 관여(empathic concern)와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이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정적인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았다. 학부생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특성분노(분노경향성), 공격성, 공감적 관여, 조망수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공감적 관여는 조절한 반면, 조망수용은 조절하지 않았다. 우선 공감적 관여는 특성분노가 공격성을 높이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보였는데, 이는 특성분노가 낮은 집단에서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이는 조망수용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 결과는 공감의 기능이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따라 변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분노가 공격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서적 측면의 공감이 인지적 측면에서의 공감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요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추후 연구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다.

**주제어:** 특성분노, 공격성, 공감적 관여, 조망수용

※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의 2020-2021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조명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 E-mail: mhc1978@sogang.ac.kr / TEL: (02) 705-8833

## 1. 서론

사회가 과밀화되고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빚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쉽게 분노를 경험한다. 사람들 간의 크고 작은 외적 갈등이 신체적·언어적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를 살펴보면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던 내적 분노가 적절하지 못한 순간 적절하지 못한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에 따르면 폭력범죄 원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분노를 참지 못해 행해진 우발적 범죄(41.2%)였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남자 42.0%, 여자 37.9%). 심지어 가장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범죄의 동기 역시 우발적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29.3%), 이 역시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남자 29.4%, 여자 28.8%). 분노(anger)는 공격성(aggression)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지만(Plutchik, 1980), 그렇다고 분노가 반드시 이러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바로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공격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비단 공격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단순한 차이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의 이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난 상대가 공격행동으로 쉽게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은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조절 기제로서 공감능력의 부족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쉽게 화가 날 수 있는 사람들, 즉 분노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쉬운 공격행동이 공감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보았다.

## 2. 이론적 배경

### 2.1. 분노와 공격성

개별정서들의 속성을 유인가(valence)와 각성기(arousal)

에 따라 범주화한 Russel(1980)의 circumplex model에 따르면, 분노는 고각성의 부정정서이다. 분노는 불쾌감이 기초가 되는 정서이지만 무엇보다 각성가가 높은 정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생리적 각성상태로 인해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분노 경향성은 개인의 특질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통 ‘특성분노’로 언급되고 있다. Spielberger(1980)는 분노를 상태분노(state-anger)와 특성분노(trait-anger)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상태분노는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일시적 정서상태로서의 분노이며, 특성분노는 개인의 특질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분노경향성을 가리킨다. 즉, 특성분노가 높다는 것은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화를 내게 하는 인지적인 특성이 있다. 이들은 주변의 위협이나 위험 등을 감지할 준비가 되어있는데(Berkowitz, 1993), 분노와 관련된 정보들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Eckhardt & Cohen, 1997; Putman et al, 2004),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들을 짜증스럽고 좌절스러운 것들로 인지하여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크게 각성하는 경향이 있다(Spielberger et al, 1983).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거에 화가 났던 경험을 더 잘 떠올리며(Todorov & Bargh, 2002; Wilkowski et al, 2007), 분노를 더 강하게 경험하고(Eum et al., 2018), 더 빈번하게 상태분노를 경험하기도 한다(e.g., Yang & Kim, 2007).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더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하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타인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적대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편향 보이기도 한다(Crick & Dodge, 1994; Dodge, 1980; Yun et al, 2004).

이렇게 특성분노는 적대감이나 인지적 편향, 비난, 빈번한 상태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인 양상을 예견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히 공격성(aggression)과 강하게 연관되어있다(Cornell et al., 1999; Lonigro et al., 2015; Plutchik, 1980; Welsh & Gordon, 1991). 특성분노는 개인을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이후 공격성이 자동적으로 촉발되도록 한다(Wilkowski & Robinson, 2008, 2010). 그렇기 때문에 분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 의미 없이 던진 한 마디 말이나 행동 하나를 자신에게 공격을 한다고 의미부여하여

분노가 치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분노는 사회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 행동을 예측하고 있다 (Mancke et al, 2017; Parrott & Zeichner, 2002; Shorey et al, 2011). 대표적으로 운전상황에서의 분노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분노 유발상황에서 더 크게 분노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운전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Dula & Ballard, 2003; King & Parker, 2008; Yun et al, 2004). 다시 말해 기질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범죄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타인은 물론 자신까지도 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와 공격성 간의 연결고리에 개입하여 역기능적 결과를 완화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한편, 공격행동이 특성분노에 의해 발현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그 과정을 동기적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 욕구 차원에서 살펴보면, 분노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노 상황에서 현재의 감정을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Maslow(1943)가 제안한 인간의 기본 욕구 차원에서 해석해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단계인데, 공격상황에서는 분노에 의한 생리적 흥분상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소속감의 욕구나 자존감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면 생리적 흥분상태가 후순위로 이동하겠지만,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분노에 의한 생리적 각성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동기적 측면을 고려해보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응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노에 의해 자기초점화된 주의를 타인에게로 분산시키고 인지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닌 감정적인 차원에서 예방적 도구로서 이러한 각성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개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지적·정서적 요인을 포괄하는 기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장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차리고 또한 어떤 감정을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요인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감(empathy)에 주목해볼 수 있다.

## 2.2. 공감(공감적 관여, 조망수용)의 특성

대인관계 장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에서는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방 관점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건강한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공감이다. 공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상황에서의 관점(perspective)과 느낌(feeling)을 경험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되며(Decety & Lamm, 2006),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정서와 행동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감이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공감을 통해 개인은 성격적·정서적으로 더 좋은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더 좋은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지능, 자존감 등이 높는데(Eisenberg & Fabes, 1998; Mayer et al, 2000; Richardson et al, 1994), 이러한 공감의 특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구축한다(Batson et al., 2002).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장면에서 적절한 행동이 나오게 하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여 사회적으로 넓은 네트워크를 갖게 만든다(Zhou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하게 하며 더 많은 기부행위를 하게 하고 타인을 도움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Davis, 1983; Grünh et al, 2008; Taylor & Signal, 2005; Wilhelm & Bekkers, 2010). 다시 말해, 공감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정서적·인지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발전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편, 공감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정서적 요인(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연민을 느끼는 경향)과 인지적 요인(자신의 관점을 넘어 타인의 관점을 상상하는 경향)으로 구성되며, 이 두 요인은 각각 공감적 관여(empathic concern)와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으로 구분된다(Davis, 1994). 여기서 공감적 관여는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정서를 경험할지를 자신도 느

끼면서 공감하는 것을 말하며, 조망수용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두 요인은 공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로 함께 관찰되며,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을 통해 얼마나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인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이를 통한 유연한 관계를 도모하는 데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2.3. 공감의 공격행동 억제 기능

공감은 특히 공격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e.g., Eisenberg, 2000; Feshbach, 1975; Hoffman, 2000). 다수의 연구들이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쉽게 느끼며(Tangney, 1991),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Denham et al 1994; Hastings & Zahn-Waxler 1998; Holmgren et al 1998; Richardson et al., 1994; Zahn-Waxler et al., 1995). 그리고 이러한 공감과 공격행동 간의 부적 관계는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기질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평소 문제행동도 덜 일으키고 비행 행동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arlo et al., 1998; Cohen & Strayer 1996; Hastings & Zahn-Waxler 1998; Tremblay et al., 1994). 공감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을 분리해서도 검증되고 있다. 우선, 공감적 관여(empathic concern)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의 억제에 기여한다(e.g., Shechtman, 2002; Jolliffe & Farrington, 2011).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공격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공감적 관여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해로운 행동이 멈추게 된다(Davis, 1996; Feshbach & Feshbach, 2009). 이를 달리 얘기하면, 타인의 상황이나 정서를 감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질적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공감적 관여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정서표현에 더 반응적이어서 스스로 해로운 행동을 통제하고 억제하려는 경향이 높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고(Kaukiainen et al., 1999), 이런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종단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1년 뒤에도 유사하게 낮은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다(Batanova & Loukas, 2011). 즉, 타인의 상황과 정서를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감적 관여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역시 공격행동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망수용은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인지적 선행요인으로서(Davis & Oathout, 1987), 조망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적절한 대처 행동을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Clark, 1980). 특히 조망수용을 잘 하는 경우 상대방의 심리적인 견해를 쉽게 알아차림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 갈등상황이 있을 때도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Kim, 2006).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높은 조망수용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갈등상황이나 분노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공격행동은 물론 간접적인 형태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행동까지도 덜 나타난다(Carlo et al., 1999; Kaukiainen et al., 1999; Loudin et al., 2003; Mehrabian, 1997). 정리하면, 공격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관여는 타인의 정서를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조망수용은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부정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2.4. 공감의 조절효과

이렇게 살펴본 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와 공감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공감과 분노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격행동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여기서 분노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절변인으로 공감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의 타인지향적 특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공감은 내부지향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는 태도이므로, 화가 났을 때라 하더라도 이를 공격행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정서적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분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공격이든 방어적인 공격이든 타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기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Bushman et al., 2001; Bushman, 2002; Bushman, Baumeister & Stack, 1999).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진심으로, 즉 정서적·인지적 측면에서 수용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불편함을 예상하게 되므로 쉽게 공격행동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공감은 개념상 타인의 관점과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Decety & Lamm, 2006). 따라서 공감이 약화되면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자신의 각성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격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호 간의 정서와 상황을 고려하며 공격행동 이외에도 해로운 행동을 지양하고 또한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의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e.g., Batson et al., 2002; Davis, 1983; Wilhelm & Bekkers, 2010). 이를 토대로 볼 때, 공감이 높은 사람들은 화가 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행동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만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 공감이 감정과 직결된 변인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주로 공격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노이며 이러한 정서적 영향이 주(主)가 되어 행동적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 즉, 분노와 공격행동 간의 연결의 핵심에는 정서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분노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상태가 분노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행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e.g., Spielberger et al, 1983; Plutchik, 1980). 만약 이성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행동이나 합리적 귀인에 따른 논리적 행동인 경우는 촉발요인이 인지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요인보다는 설득이나 협상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행동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압도된 상태에서 행하게 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정서가 개입된 요인을 통해 원인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감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분노경향이 높더라도 공감이 높으면 공격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구체적으로 정서적·인지적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관점에 근거하여(Davis, 1994), 각 영역에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이 특성분노와 공격행동 간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조절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분노경향성을 가리키는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소 공격행동 준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공감과 공격행동 간의 부적인 관계를 보지 않고 특성분노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정서적·인지적 공감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특성분노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적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공감적 관여가 높은 사람들은 특성분노에 따른 공격성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특성분노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조망수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조망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특성분노에

따른 공격성 정도가 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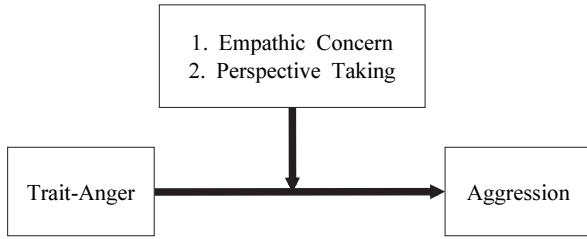


Fig. 1. Diagram of the two hypotheses

## 4. 방법

### 4.1. 연구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329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의 구성 비율은 남자 148명(45%) 여자 181명(55%)이었으며,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30세 사이까지 평균 22.41세(표준편차 2.22)였다.

### 4.2. 도구

#### 4.2.1. 특성분노

참가자들의 분노경향성 측정을 위해 Spielberger, Jacobs, Russel과 Crane(1983)의 특성분노척도(TAS, Trait Anger Scale)를 김세진(1999)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참가자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나는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화가 날 때, 나는 견딜 수 없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짜증나게 한다.’ 등의 내용으로 15개 문항 각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 4.2.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AQ: Aggression Questionnaire)와 변상수(1996)의 척도를 정연희(2006)가 종합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

용하였다. 본 척도는 폭력적 공격성(예, 나는 너무나 화가 나면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부숴버린다.), 대응적 공격성(예,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앙갚음을 한다.), 비난 및 헐뜯(나는 때때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헐뜯음을 늘어놓는다.), 논쟁적 공격성(예,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논쟁할 수밖에 없다.), 간접·수동적 공격성(예,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전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행동경향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22개 문항 5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5였다. 아울러, 척도의 계산은 보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조절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므로 각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하여 계산된 평균 점수를 적용하였다.

#### 4.2.3.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

Davis(1980, 1983)가 개발한 대인간 반응 척도(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을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공상, 공감적 관여, 조망수용, 개인적 고통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두 요인의 문항들은 정서적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Eisenberg & Miller, 1987). 여기서 공감적 관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나에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R).’, ‘누군가 이용당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들에 대해 일종의 보호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나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꽤 감동을 받는다.’ 등의 내용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대인간 반응 정도를 확인하는 척도이고, 조망수용은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게 어렵다(R).’,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려고 한다.’ 등의 내용으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경향을 확인하는 인지적 성격의 척도이다. 두 요인 모두 7개 문항씩 5점으로 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공감적 관여 .74, 조망수용 .68이었다.

## 5. 결과

### 5.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함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참고). 그 결과, 특성분노는 공격성을 강하게 예측하고 있었고,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 역시 공격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 $r_{\text{공감적 관여}} = -.26, p < .01$ ;  $r_{\text{조망수용}} = -.22, p < .01$ ).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은 독립변인인 특성분노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지만( $r_{\text{공감적 관여}} = -.15, p < .01$ ;  $r_{\text{조망수용}} = -.23, p < .01$ ), 그 정도가 낮아 조절변인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 한편, 성별은 조절변인인 공감적 관여와 종속변인인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서( $r_{\text{공감적 관여}} = .18, p < .01$ ;  $r_{\text{공격성}} = -.16, p < .01$ ),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적으로 덜 공감하고 공격성이 더 높았다. 즉, 본 연구 자료에서 성별은 조절변인 및 종속변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성별 변인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 5.2. 변인들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독립변인(특성분노)과 두 조절변인(공감적 관여, 조망수용)을 평균중심화(centering)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특성분노와 통제변인인 성별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조

절변인인 공감적 관여 혹은 조망수용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각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효과크기를 함께 확인해보았다.

우선, 공감적 관여의 조절효과 분석결과가 Table 2와 Fig. 2에 제시되어있다. 분석 결과, 공격성에 대한 특성분노의 주효과( $\beta = .62, p < .001$ )와 공감적 관여의 주효과( $\beta = -.13, p < .01$ ), 특성분노와 공감적 관여의 상호작용효과( $\beta = -.09, p < .05$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높은 특성분노는 높은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적인 관계는 공감적 관여의 정도에 따라 조절되었다. 이에 공감적 관여 정도를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이하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공감적 관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평균 + 1 표준편차 혹은 그 이상)도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beta = .58, p < .001$ ), 이러한 연합 강도는 공감적 관여를 덜 하는 사람들(평균 - 1 표준편차 혹은 그 이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했다( $\beta = .83, p < .001$ ).

다만, 조절효과 분석에서 효과크기를 확인했을 때, 상호작용항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R제곱 변화량이 .008로 매우 작았다. 따라서 공감적 관여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성분노와 공감적 관여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크기 크다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특성분노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beta = .63, p <$

Table 1.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N=329)

	1	2	3	4	5	6
1. Trait-Anger	1					
2. Empathic Concern	-.15**	1				
3. Perspective Taking	-.23**	.48**	1			
4. Aggression	.65**	-.26**	-.22**	1		
5. Gender	.03	.18**	-.03	-.16**	1	
6. Age	-.07	.01	.08	0	-.31**	1
Mean	2.92	3.52	3.46	2.68	1.55	22.41
SD	.64	.53	.52	.49	.50	2.22

\*\*  $p < .01$

Gender(성별)의 경우 코딩값을 남자는 1로 여자는 2로 입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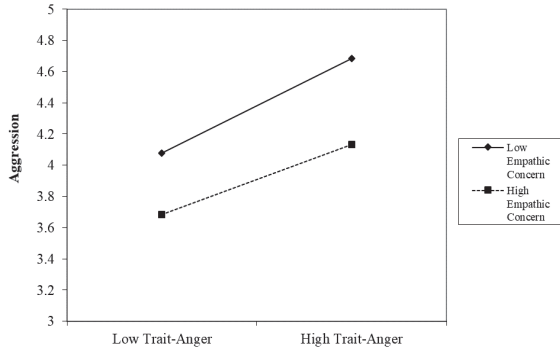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empathic conc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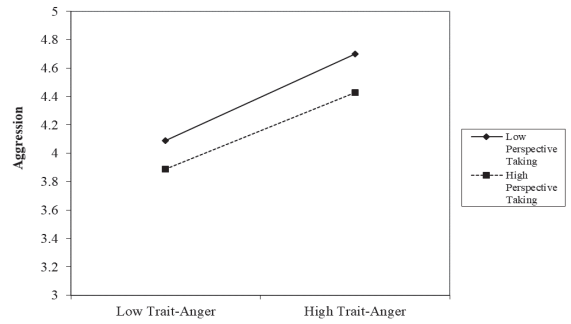


Fig. 3. Moderating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Table 2. Moderating effect of empathic concer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anger and aggression

	B	SE	$\beta$	t
(Constant)	2.91	.07		44.63***
Gender	-.15	.04	-.16	-3.81***
Trait-Anger	.47	.03	.62	15.18***
Empathic Concern	-.12	.04	-.13	-3.02**
Trait-Anger × Empathic Concern	-.12	.06	-.09	-2.17*

\*  $p < .05$ , \*\*  $p < .01$ , \*\*\*  $p < .001$   
 D.V. = Aggression,  
 Control = Gender  
 $R^2 = .474$ ,  $\Delta R^2 = .008$ ,  $F(4, 324) = 72.855$ ,  $p < .001$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anger and aggression

	B	SE	$\beta$	t
(Constant)	2.95	.07		45.23***
Gender	-.18	.04	-.18	-4.40***
Trait-Anger	.48	.03	.63	14.85***
Perspective Taking	-.07	.04	-.08	-1.86
Trait-Anger × Perspective Taking	-.06	.05	-.04	-1.05

\*\*\*  $p < .001$   
 D.V. = Aggression  
 Control = Gender  
 $R^2 = .456$ ,  $\Delta R^2 = .002$ ,  $F(4, 324) = 67.937$ ,  $p < .001$

.001), 조망수용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beta = -.08$ ,  $p = .064$ ) 특성분노와 조망수용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4$ ,  $p = .296$  (Table 3와 Fig. 3 참조). 즉, 특성분노가 예측하는 공격성은 조망수용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는 조망수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적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조망수용이 높다고 하여 분노 경향이 높은 사람이 덜 공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조망수용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역시 공감적 관여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R제곱 변화량이 .002로 매우 작았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양상을 강력한 결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높은 특성분노가 높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관여가 정서적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만, 인지적 측면에서 조망수용은 공격성을 줄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같은 공감이라도 정서적인 차원과 인지적인 차원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인지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에서보다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을 방지하데 좀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6.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인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이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정적인 관계 정도를 줄일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성분노가 공격성을 예측하는 정도가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을 많이 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절효과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공감적 관여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조망수용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의 주



요 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특성분노가 공격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공감적 관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서적으로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감을 다른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공감적 관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Batson et al., 2002)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Zhou, Valiente & Eisenberg,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타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함과 동시에 타인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공감적 관여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의 촉발 가능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조망수용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많은 연구에서 공감의 중요성과 기능을 다루면서 공감적 관여와 함께 조망수용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노와 공격성을 다룬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공감이 정서와 행동 조절에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조망수용은 상대방의 관점 혹은 조망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내 관점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은 감정적 과정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Metcalfe와 Mischel(1999)는 인간은 뜨거운 체계(hot system)와 차가운 체계(cold system)의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전자가 감정에 따라 정보 처리를 하는 경로라면 후자는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으로 판단하는 경로이다. 이러한 두 체계를 공감에 적용해보면, 같은 공감이라 하더라도 정서적 공감인 공감적 관여는 다소 뜨거운 체계로, 인지적 공감인 조망수용은 다소 차가운 체계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적 관여와 다르게 조망수용은 타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감정

을 충분히 공유하는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적 관여와 다른 형태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은 특정한 정서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의 도구로는 충분히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루어야 하는 대상(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모두 강한 정서가를 지닌 변인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분노 경향이 높은 사람의 내면에 개인 특성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행동할 준비가 된 분노’는 고각성의 부적 정서이다(Russel, 1980). 즉, 매우 강한 정서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촉발요인이 작용하는 과정에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적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 활성화된 강도가 상쇄될 가능성이 더 크며, 인지적인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서 활성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한 정서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종합해보면, 분노가 공격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망수용이 공감으로서 갖는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상기해볼 때 조망수용의 정서조절 효과는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특질적인 측면에서 분노경향성이 최대한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질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것은 일상 속에서 주로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있고 그 기저에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언제든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격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Bushman et al., 2001; Bushman, 2002; Bushman, Baumeister & Stack, 1999), 공격행동을 하는 것은 그 순간 나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출행위일 뿐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행동 자체가 불쾌감을 증폭시켜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파국적인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질적인 것은 바꾸지 못하는 특성이므로 이에 따른 행동 역시 그 사

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전제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기질적으로 화가 쉽게 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인에 대해 공감, 특히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부정적 정서 상태가 반드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이다. 즉, 이 연구는 특성분노가 공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공감의 역할을 학술적으로 확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공감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정서적인 측면(공감적 관여)과 인지적인 측면(조망수용)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노 행동에서의 변별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어떻게 이해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혹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과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가 감정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은 처리되는 경로가 다르고 처리 결과에서 기대하는 방향 역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즉,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감의 효과 역시 변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공감이 정서조절과 행동 상에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분노정서가 공격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정서적 인지적 접근이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의 공감이 인지적 측면에서의 공감보다 좀 더 기능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폭력과 범죄를 줄이는 데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책의 구축과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줄이고 안정된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의 노력과 아울러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직접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를테면 범죄자들의 경우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소자들의 교육 장면에서 공감의 교육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 느껴보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보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과 공감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등이 학교 교육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유연한 대인관계 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생활 장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데 무엇이 필요하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공감 교육이 정책적인 요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는 해석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유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변인 간의 명확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조절분석의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결과값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변인들의 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통해 개인의 경향성을 보고 한 자료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특성분노가 원인이 되어 공격성이 촉발되는 것인지 원래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경향성 때문에 쉽게 화가 나는 것인지 혹은 공격적인 행동경향성이 화가 날 상황들에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e.g., Wilkowski & Robinson, 2008, 2010)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를 공격성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노경향성이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먼저 점화시키고 이후 이것이 공감 경향에 따라 공격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설득력 있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다루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의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단일 척도로 진행하는 연구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감의 경우 역시 타인의 입장을 정서적 인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혹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똑같이 분노가 접화되는 상황일 때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와 자기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질적으로 다를 것이고, 또한 자기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공감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인지적 측면의 공감인 조망수용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분노가 촉발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객관적 판단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개입되는 경우와 같이 감정적인 부분보다 인지적인 것이 우선될 때는 조망수용의 조절효과가 확인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의 정서조절 기능을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해보면 실생활 적용에 있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온 것을 두 변인의 근본적인 효과 차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Fig. 2와 3을 보면 두 조절효과의 양상이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3단계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면서 R 제곱의 변화량은 공감적 관여 .008, 조망수용 .002로 매우 낮았다(Table 2, 3). 이는 본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다소 약하고, 표본수를 증가하거나 유사한 다른 도구의 사용을 적용했을 때 혹은 재검사를 실시했을 때 또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본 분석의 결과에서는 유의도 상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계적 판단 결과만으로도 두 조절변인 간의 차이로 선불리 판단하는 데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이후 이 효과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표본수를 적용하고 경험적 연구로서 보다 신뢰로운 검증이 가능한 도구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부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 혹은 상황에 정서적 인지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도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같은 사안이라도 공감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타인이나 상황에 공감 정도의 차이는 생활 속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문화차의 경우로 추론해보면, 타인이나 주변과의 조화가 강조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더 민감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더 공감하려는 노력이 클 수 있다. 또한 세대 간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노년기로 가면서 시간에 따라 쌓인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더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노화로 인해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감이 삶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교육 장면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분위기 구축 면에서 적절한 접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atanova, M. D., & Loukas, A. (2011). Social anxiety and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s of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1), 1534-1543.
- Batson, C. D., Ahmad, N., Lishner, D. A., & Tsang, J. (2002). Empathy and altruism.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485-498).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erkowitz, L. (1983). The experience of anger as a parallel process in the display of impulsive, "angry" aggression. In R. G. Green & E. I. Donnerstein (Eds.), *Aggress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views 1* (pp. 103-134). New York: Academic Press.
- Bushman, B. J. (2002). Does venting anger feed or extinguish the flame? Catharsis, rumination, distraction, anger, and aggressive respond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24-731.
- Bushman, B. J., Baumeister, R. F., & Phillips, C. M. (2001). Do people aggress to improve their mood? Catharsis beliefs, affect regulation opportunity, and aggress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7-32.
- Bushman, B. J., Baumeister, R. F., & Stack, A. D. (1999).

- Catharsis, aggression, and persuasive influence: Self-fulfilling or self-defeating prophe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367-376.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rlo, G., Raffaelli, M., Laible, D. J., & Meyer, K. A. (1999). Why are girls less physically aggressive than boys? Personality and parenting mediators of physical aggression. *Sex Roles*, 40(9-10), 711-729.
- Carlo, G., Roesch, S. C., & Melby, J. (1998). The multiplicative relation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3), 266-290.
- Clark, K. B. (1980).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2), 187-190.
- Chung, Y. (2006). *The motional characteristics of aggerssive people-with an emphasis on anger responses to the negative emotional ev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988-998.
- Cornell, D. G., Peterson, C. S., & Richards, H. (1999). Anger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mong incarcerat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1), 108-115.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 Davis, M. H. (1996).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Westview Press.
- Davis, M. H., & Oathout, H. A.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97-410.
- Decety, J., & Lamm, C. (2006). Human empathy through the lens of social neuroscience.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6, 1146-1163.
- Denham, S. A., Renwick-DeBardi, S., & Hewes, S. (1994).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ers: Relations with emotion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4), 488-508.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1), 162-170.
- Dula, C. S., & Ballard, M. E. (2003).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asure of dangerous, aggressive, negative emotional, and risky driv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2), 263-282.
- Eckhardt, C. I., & Cohen, D. J. (1997). Attention to anger-relevant and irrelevant stimuli following naturalistic insul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4), 619-629.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665-697.
-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 5 ed.*, (pp. 701-78), New York, NY: Wiley.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Eum, Y. J., Lee, K. H., & Sohn, J. H. (2018). Brain function during recall of anger experi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trait anger.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20(3), 49-60.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25-30.
- Feshbach N. D., & Feshbach S. 2009. Empathy and education. In: Decety J, Ickes W. J., editors. *The*



-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pp. 85-98), Cambridge: The MIT Press.
- Grühn, D., Rebucal, K., Diehl, M., Lumley, M., & Labouvie-Vief, G. (2008). Empathy across the adult lifespan: Longitudinal and experience-sampling findings. *Emotion, 8*(6), 753-765.
- Hastings, P. D., & Zahn-Waxler, C. (1998). Psychophysiological and socialization predictors of empathy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In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 Holmgren, R. A., Eisenberg, N., & Fabes, R. A. (1998). The relations of children's situational empathy-related emotions to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1), 169-193.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11). Is low empathy related to bullying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social background variables?. *Journal of Adolescence, 34*(1), 59-71.
- Kaukiainen, A., Björkqvist, K., Lagerspetz, K., Österman, K., Salmivalli, C., Rothberg, S., & Ahlbom, A.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empathy, and three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5*(2), 81-89.
- King, Y., & Parker, D. (2008). Driving violations, aggression and perceived consensu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58*(1), 43-49.
- Kim, J. H. (2006). *Relations among Perspective Taking, Relationship Attribution,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Dating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 Kim, S. J. (1999). *The Effects of the Adult Attachment Style Upon the Experience of the Ang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 *Criminal Investigation.*
- Lonigro, A., Schneider, B. H., Laghi, F., Baiocco, R., Pallini, S., & Brunner, T. (2015). Is cyberbullying related to trait or state ang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6*(3), 445-454.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9*(5), 430-439.
- Mancke, F., Herpertz, S. C., Kleindienst, N., & Bertsch, K. (2017). Emotion dysregulation and trait anger sequential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1*(2), 256-272.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 (2000). Selecting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case for ability scales. In R. Bar-On & J. D. A.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pp. 320-4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ehrabian, A. (1997). Relations among personality scales of aggression, violence, and empathy: Validational evidence bearing on the Risk of Eruptive Violence Scale.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3*(6), 433-445.
- Metcalf, J., & Mischel, W. (1999). A hot/cool 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19.
- Parrott, D. J., & Zeichner, A. (2002). Effects of alcohol and trait anger on physical aggression in 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2), 196-204.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 Putman, P., Hermans, E., & van Honk, J. (2004). Emotional stroop performance for masked angry faces: it's BAS, not BIS. *Emotion, 4*(3), 305-311.
- Richardson, D. R., Hammock, G. S., Smith, S. M., Gardner, W., & Signo, M. (1994). Empathy as a cognitive inhibitor of interpersonal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0*, 275-289.
- Russe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61-1178.
- Shechtman, Z. (2002).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aggressive boy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4(4), 211-222.
- Shorey, R. C., Cornelius, T. L., & Idema, C. (2011). Trait anger as a mediator of difficulties with emotion regulation and female-perpetrated psychological aggression. *Violence and Victims*, 26(3), 271-282.
- Spielberger, C. D. (1980). Preliminary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Scale(STAS). *Tampa, Florid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Human Resources Institute.*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61-189.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 Taylor, N., & Signal, T. D. (2005). Empathy and attitudes to animals. *Anthrozoös*, 18, 18-27.
- Tremblay, R. E., Pihl, R. O., Vitaro, F., & Dobkin, P. L. (1994).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9), 732-739.
- Todorov, A., & Bargh, J. A. (2002). Automatic sources of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1), 53-68.
- Welsh, W. N., & Gordon, A. (1991).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Test of a causal mode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2), 125-145.
- Wilhelm, M. O., & Bekkers, R. (2010). Helping behavior, dispositional empathic concern, and the principle of ca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3, 11-32.
-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08). The cognitive basis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An integrativ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1), 3-21.
- Wilkowski, B. M., Robinson, M. D., Gordon, R. D., & Troop-Gordon, W. (2007). Tracking the evil eye: trait anger and selective attention within ambiguously hostile scen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3), 650-666.
-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10). The anatomy of anger: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8(1), 9-38.
- Yang, M. H., & Kim, E. J. (2007). The empirical study on the adolescents' anger: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clarity and personality traits. *Studies on Korean Youth*, 18(1), 163-184.
- Yun, J. H., Hyun, M. H., & Kim, I. S. (2004). The effect of trait anger and intent-ambiguity on other-blame and driving ang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3), 713-728.
- Zahn-Waxler, C., Cole, P. M., Welsh, J. D., & Fox, N. A. (1995).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 27-48.
- Zhou, Q., Valiente, C., & Eisenberg, N. (2003). Empathy and its measuremen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269-284),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원고접수: 2020.11.09

수정접수: 2020.12.14

게재확정: 2020.12.27